예수이름 무게가 가벼우면 믿음을 의심하자

(히1:4~14)

4. 그가 천사보다 훨씬 뛰어남은 그들보다 더욱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얻으심이니
5. 하나님께서 어느 때에 천사 중 누구에게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하셨으며 또 다시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 하셨느냐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중심으로 <예수이름 무게가 가벼우면 믿음을 의심하자>라는 제목의 하나님말씀 증거 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대통령의 이름이 박 근혜 석 자입니다.
4천만이 다 이 이름을 알고 있는데, 4천만이 박근혜 세 글자로 된 이름을 입에 올릴 때는 이 이름의 무게가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저 같은 보통 국민 중의 한 사람이 부를 때와 지금 국무위원의 한 사람으로 장관직을 수행하고 있는 사람과 초등학교 4, 5 학년 정도의 아이들이 부를 때는 다 박 근혜 이름의 무게가 다릅니다.
장관들께서 박근혜라는 이름을 생각하며 입에 올릴 때는 그 이름 속에 자기 장관직의 생명이 다 담겨있습니다.
그리고 대통령의 직무가 어떤 것을 가까이 보고 있기 때문에 대한민국의 대사를 결정하는 그 자리의 위엄과 권세를 알고 있으니까 박근혜라는 이름이 그 장관들의 마음속에 생각될 때는 어마어마하게 무거운 이름입니다.
그러나 저 같은 사람은, 개인적으로 박 근혜 대통령이 좋아요, 그 어떤 대통령들에게서 찾아볼 수 없는 점이 있는데, 친인척이 시끄러운 것 그리고 영부인이 시끄러운 것, 그럴 일이 없다는 거죠, 조용한 것만으로도 좋아요.
정책은 어차피 사람이 하는 것, 세월 따라 변하는 것이고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고, 잘할 수도 있고 못할 수도 있고, 잘하면 칭찬하고 못하면 참고 바르게 고쳐지기를 기대하면 되지만, 이 친인척 문제 같은 것은 이제는 없어져야 되는데, 박근혜 대통령은 그런 게 없어서 좋아요.
그러나 거기까지입니다, 또 임기가 다 돼서 다른 대통령이 오면 그 사람을 대통령으로 생각하

는 거죠.
그러나 장관들의 경우, 일평생에 한 번 하는 장관의 생명과 의미가 박 근혜라고 하는 세 글자에 다 담겨있으니까 이 무게가 말할 수 없지요.

여러분! 예수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맞지요, 이 말씀이 맞는데, 또 주님께서 직접 뭐라고 하셨는가 하면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모두 구원 얻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왜 이처럼 동시에 모순이 되는 문장이 가능할까요?
박 근혜 대통령의 이름과 마찬가지로 예수라는 이름을 입으로 부르고 마음으로 생각할 때, 그 예수라는 이름이 지니는 무게가 사람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에요.
이름의 무게가 어떤 적정 커트라인에 도달하지 않으면 예수님 이름 아무리 불러도 구원은 없습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 이름을 백 번, 천 번 부르는데 깃털같이 가볍다, 그러면 구원이 주어지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렇게 예수님을 깃털처럼 부르는 것은 믿음이 아니니까.
근데 하루에 한 번 불러도 그 한 번 생각하고 부르는 이름에 천지보다 무거운 무게가 주어져 있다면 이건 구원받는 믿음이지요.
이런 경우에 예수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얻는다는 말이 적합하다는 얘깁니다.
예를 한 번 또 들어봅니다.
풍랑 만난 배, 제가 참 자주 얘기하지요?
저는 이 구절이 너무너무 좋아요.
예수님과 제자들 모두가 다 풍랑을 만나고 있고 동시에 또한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라는 이름이 가리키는 실제 존재가 천지의 창조주임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라는 이름이 창조주를 가리킨다는 이 사실을 모르는 사람이 배 위에 없어요.
그런데 왜 예수님은 주무시고 제자들은 죽음의 공포에 떨면서 난리를 피웠을까요?
우리가 볼 때 너무나 인간적이고 당연하다고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나무라십니다.
예수님이 인간을 모르시는 분이 아니세요, 인간이 예수님 때문에 생겨난 존재들입니다.
인지상정이라는 걸 예수님도 아셔요, 그런데도 나무라십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이라는 이름이 풍랑뿐만 아니라 그 갈릴리 바다 전체, 팔레스틴 땅 전체, 아니 온 세상 우주만물, 태양과 달까지도 다 지으신 창조주라는 그 존재를 가리키고 있는데, 문제는 예수님

이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생각할 때는 그 창조주라는 실제 존재의 무게가 들어와 담겨져 있습니다.
근데 제자들에게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라는 걸 지적으로는 알고 있는데, 실제 창조주의 존재의 무게가 하나님이라는 이름 속에 담겨져 있지를 않는 거예요.
창조주의 존재의 무게가 하나님이라는 이름 속에 담겨져 있으니까 풍랑 따위가 그 무게를 움직일 수가 없지요.
하나님이라는 이름 속에 담겨져 있는 그 어마어마한 존재의 무게를 예수님이 품고 있는 동안에 풍랑 따위가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풍랑이 주는 압박감이라는 건 깃털에 불과한 거예요.
근데 제자들은 실제 하나님이라는 이름이 가리키는 창조주라는 존재, 그 존재의 무게가 그 이름 속에 담겨있지 않는 겁니다.
그냥 하나님이라는 이름은 알고 있지만 하나님이라는 이름이 깃털처럼 가벼운 거예요.
그러니 조그만 바다, 바다도 아닌 호수에서 이는 풍랑 때문에 난리를 치는 거예요.
풍랑의 압박감이 완전히 좌우로 흔들어버리는 겁니다.

우리가 철야기도나 40일 작정 금식기도를 하는데, 건강문제나 돈 문제 때문에 한다, 그러면 돈 문제 때문에 철야기도 하면서 하나님과 예수님의 이름을 몇 번 부를까요?
백 번, 천 번 부를 겁니다.
근데 그렇게 백 번, 천 번 불린 예수님의 이름을 다 모아놔도 돈이라는 이름이 가리키는 존재 그 무게보다 가벼운 거예요.
돈! 하면 마음에 묵직~합니다.
그래서 경제적인 상황에 따라서 내 마음의 행과 불행이 좌우로 휘청휘청합니다.
돈이 좀 들어오면 활~짝 기뻤다가, 돈이 좀 안 들어오면 계곡으로 곤두박질합니다.
돈의 무게가 어마어마해요, 천근만근의 무게로 아래로 떨어지면 내 마음도 아래로 가고, 그게 위로 올라가면 딸려 위로 올라갑니다.
마치 풍랑의 무게에 흔들리듯이 그렇게 돈의 무게에 흔들리면서 주님을 부르는데, 그 주님이 누군가 하면 '만유의 주'이십니다.
하늘과 땅, 그리고 해와 달과 별들의 주인이신 분이신데, 그 주인을 가리키는 이름을 부르면서 그 크기에 비교하면 티끌만도 못한 돈 때문에 마음이 휘청거리면서 티끌과 같은 돈 문제를 우주보다 더 무거운 존재를 끌어들이면서 해결해달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 이게 믿음이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이건 믿음이 없는 거잖아요.

만유의 주라고 하는 그 존재를 가리키는 게 예수라는 이름인데, 예수라는 이름이 마음속에서 생각나고 입으로 불려 지는데도 그 이름 속에, 장관들의 마음속에 담겨있는 대통령의 이름의 무게만큼도 실려 있지 않다고 한다면 믿는 거 아니잖아요.
만유보다 더 크신 예수님의 존재의 무게가 실제로 예수라는 이름에 담겨져 있었다면, 돈 문제는 문제가 아니죠.
그러니까 사도들이 거지같이 살 수 있었던 거예요.
그게 좋아서가 아니라, 만유보다 큰 만유의 주인 되시는 존재의 무게가 예수라는 이름에 담겨지고, 그 예수라는 이름을 마음에 품고 있다 보니까 내가 돈이 없다는 사실은 깃털처럼 가벼운 먼지 티끌이 몸에 묻은 것과 같은 문제로 취급이 돼버린다는 얘깁니다.
그리고 성령이 임했을 때 예루살렘 초대교회가 유무상통한 것도 돈이라는 문제가 티끌과 같은 문제로 상대적으로 가볍게 느껴질 만큼, 그 예수라는 이름이 가리키는 존재의 무게가 그대로 들어왔던 거예요.
성령님께서 하늘에 승천해 계시는 그 존재의 무게를 교인들에게 심어주었던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 이름을 부르면서도 이 세상의 작은 문제들에 의해서 우리 마음이 완전히 좌우돼버리고 말아요.
그건 무게가 실리지 않은 것이고 믿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게 아니다'는 말을 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피아노, 피아노라는 이름 가리키는 악기가 있잖아요.
저한테는 그 피아노라는 악기가 무지하게 무거움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에서 피아노라는 이름은 깃털 같아요.
없어도 돼요, 평생 없어도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나 피아니스트들에게는 피아노학원을 하시는 원장님에게는 이 피아노라는 세 글자의 이름이 갖는 의미가 어마어마하게 무거운 겁니다.
예수라는 이름이 피아니스트나 피아노학원 원장님에게 피아노란 이름이 갖는 것과 같은 그런 무게를 가져야 된다 이겁니다.
그런 무게를 갖게 되면 이 지구에서 일어나는 일 같은 것으로는 내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이름을 부르는 자 중에서 믿음으로 구원 얻게 되는 커트라인이 예수이름의 무게를 달아보면 아는데, 지구보다 무거우면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존재 자체의 무게를 그대로 우리가 다 담을 수는 없어요, 이 세상 사는 동안에.

그러나 지구보다는 무거워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순교가 가능한 거예요.

내가 이 육체를 가지고 지구에서 사는 삶, 그 전체의 의미보다도 예수라는 이름이 가리키는 존재의 무게가 훨씬 더 무겁기 때문에 그 존재의 무게 중의 일부가 내 안에 들어왔는데, 지구보다 좀 더 커요, 지구보다 몇 천 배 몇 만 배인데, 나는 지구보다 두 배 정도의 예수이름의 무게가 들어와 있어요.
그러면 지구에서 일어나는, 내 목숨이 없어지는 일조차도 이겨나갈 수 있는 겁니다.
이게 아마도 구원의 커트라인이 아니겠어요?
세상을 이겼노라, 하는 것처럼 지구의 무게를 이길 만큼 내가 부르는 예수라는 이름 속에 그 존재의 무게가 들어와 있으면 그것이 구원 받는 믿음이 아니겠느냐 하는 얘기죠.

여러분, 오늘 본문은 우리가 얘기를 다 했어요.
그래도 본문의 의미를 한 번 살펴보는 게 중요하지 않겠어요?
유대인들의 교리 공격이 있어요, 율법을 지켜야 한다, 할례를 받아야 되지 않겠느냐?
계속 공격을 합니다.
로마의 박해가 또 주어집니다.
그러니까 유대인으로서 기독교인이 된 사람들이 흔들립니다.
그 흔들리는 이유가 뭘까요?
오늘 4절 말씀에, 그 흔들리는 이유에 대해서 히브리서 저자가 파악을 하지 않았겠어요?
이 흔들리는 이유가 4절에 나오는 거예요.
'그가 천사보다 훨씬 뛰어남은' 그는 3절에 승천하셔서 보좌 우편에 계신 주님을 가리킵니다.
'그가 천사보다 훨씬 뛰어남은 그들보다 더욱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얻으심이니'
천사보다 훨씬 뛰어난 것이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얻었다.
이름을 기업으로 얻었다는 말은 이 세상 사람들이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계신 그 존재에 대해서 부르는 이름을 말합니다.
이 세상에서 이름을 얻은 거예요.
승천해 계신 주님의 존재가 불려 지기 위해서 이 세상 사람들 중에 이름을 얻게 된 겁니다.
그 존재가 새롭게 생겼다는 얘기가 아니라 원래 영원 전부터 계시던 존재였는데…

그 존재를 가리키기 위해서 세상 사람들에게 허락한 이름이 뭐냐 하면,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고 쭉 나옵니다.
다섯 가지로 구약성경을 인용해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이야기를 왜 하는 겁니까?

그 존재 자체는 천사보다 훨씬 우월하다, 이 얘기를 왜 하나 하면, 아니 예수님 믿는다고 했는데 되는 일이 없는 거예요, 삶이 나아지는 게 아니고 예수님 믿었기 때문에 점점 더 악화돼 갑니다.
로마의 식민지하에 있기는 했지만 안정되게 살았었는데, 동족 유대인들은 계속해서 잘못됐다고 하는 거예요.
애들이 때리는 매도 많이 맞으면 아파요, 그리고 가랑비에 옷 젖는지 모른다는 말처럼, 자꾸 틀렸다고 얘기하면 마음이 흔들리게 돼요.
그것만이 아니라 로마가 이제는 기독교인이라고 박해를 해요, 유대인은 멀쩡하게 유대종교생활을 그대로 하고 있는데.
그러니 사람들에게 어떤 경향이 생기는가 하면, '예수만 믿어갖고는 안 되는 거 아닐까? 우리 삶의 형편이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 거냐, 어떻게 예수님을 믿는데 점점 악화만 돼가고 있냐?' 그러다보니 구약에서 찾아보는 겁니다.
예수님으로 부족하다면 뭘 또 숭배해야 될까?
그래서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만든 피조물 중에 가장 뛰어난 피조물이 모세와 천사들이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쭉 읽어가다 보면 3장에서는 모세보다 우월하다는 얘기가 또 나옵니다.
천사 얘기가 나오는 이유는 유대인들이 그렇게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 히브리서 저자가 천사가 비교가 안 되는 무게의 존재다, 어마어마한 엄청난 존재, 그 예수님의 실제 존재의 무게를 지금 다섯 가지로 본문에서 흔들리는 유대인 기독교인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이 그분의 아버지다, 또 8절 9절에서는 하나님의 높은 권세를 가지신 왕이시다, 왕이니까 얼마나 무거운 존재입니까?
로마황제보다 더한 거죠, 왜냐하면 천지의 왕이니까.
그리고 10절부터 12절까지는 영원무궁하신 창조주로서 만물의 주인이다,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어졌다.
이렇게 예수라는 이름이 가리키는 존재의 크기와 무게를 계속 나열해주는 겁니다.
왜 흔들리느냐 하면, 유대인으로서 기독교인이 된 사람들이 예수라는 이름을 부를 때에 그들이 부르는 예수라는 이름 속에 승천해 계신 그 본래의 존재의 무게가 하나도 실려 있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러니 로마의 박해나 유대인들의 공격 같은 것은 예수님이 풍랑 만난 배 위에서 만나게 되는 풍랑 정도인데, 유대인 기독교인들이 지금 당시 제자들의 입장에 서버린 겁니다.
로마의 박해나 이런 것이라 그래봐야 예수라는 이름이 가리키는 진짜 존재의 무게가 조금이라

도 들어왔다면 이거 뭐 끄떡 할 이유가 없는 거거든요.

어마어마하게 큰 항공모함 같은 것들은 바다에서 웬만큼 태풍이 몰아치고 풍랑이 일어도 끄떡 하지 않습니다.
항공모함조차도 그럴 판인데, 항공모함과 태평양의 크기를 비교해보세요, 1억분의 1이나 되겠습니까? 그런데도 태평양에서 일어나는 풍랑에 끄떡 하지 않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말하는 예수라는 이름이 태평양뿐만 아니라 5대양 6대주를 포함하고 달과 해와 별들을 만드신 주인이십니다.
실제 존재가 그런 존재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와 달과 주인이라는 그 존재됨이 내가 예수이름을 부를 때 하나도 들어와 있지 않는 거예요.
지금 당장 몇 천만 원이 없어서 쩔쩔매는데, 그 몇 천만 원보다도 예수님이 가벼운 분입니다.
그러니 이게 믿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믿음으로 구원받지요, 예수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지요, 다 맞아요.
그러나 믿음이 뭐고 예수이름을 부르는 게 뭐냐 이거에요.
내가 박근혜 대통령을 부르는 것과 장관들이 박근혜 대통령을 부르는 게 다르지 않습니까?
초등학생들에게 '우리나라 대통령의 이름이 뭐야?' 하면 '박 근혜요'라고 할 때 박 근혜가 다르잖아요.
똑같이 예수이름을 불러도 같을 수가 없어요.
예수이름 부르면 구원받지만 부른다고 다 받는 거냐 이거에요.

우리가 세례를 받으면 예수님 믿는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세례를 받는 것은 믿는 상태가 된다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 이제부터 믿음을 향해 가겠다는 얘기가 된다는 것이 옳다 이겁니다.
그래서 루터도 Daily Baptism을 얘기한 거예요.
한 번 세례를 받았으면 세례의 의식은 없지만 죽을 때까지 매일매일 Daily Baptism, 이 세상에 대해서 죽고 하나님에 대해서 삶으로서, 우리의 세례의 의미가 점점 더 내 마음속에 확고하게 자리 잡아가도록 해야 한다고 Daily Baptism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므로 세례 받았다고 내가 믿음이 있다고 얘기하지 말고, 세례 받았으면 '이제부터 믿음을 향해 간다'고 얘기해야 되요.
그러면 믿음이 뭡니까?
최소한도 구원을 얻기 위한 믿음은,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라는 말씀을 기준으로 볼 때, 내가 이 지구에서 어떤 풍랑이 일어나도 그 풍랑 때문에 흔들리지 않을 만큼 예수님의 존재의 무게

가 예수님이라는 이름 속에 담겨지는 것이라 이겁니다, 최소한의 커트라인의 믿음이.
그러니까 박해를 이겨나가는 거예요, 지구 안에서 일어나는 어떤 풍랑에 흔들리지 않을 만큼의 예수님이라는 존재의 무게가 내가 부르는 예수라는 이름 속에 들어와 있을 때.

히브리서가 희한한 접근방식을 채택을 합니다.
이름에 무게가 실리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너희가 천사가 대단한 줄 알지만, 천사라는 이름이 가리키는 하늘의 진짜 존재들의 무게는 예수라는 이름이 가리키는 진짜 존재의 무게와 비교할 때 아무것도 아닌데, 너희가 지금 왜 천사를 찾고 로마 박해나 이런 것 때문에 무서워하고 있느냐, 인간적으로는 이해가 가지만 그러나 예수를 부른다고 하는 그것으로 볼 때는 이해가 안 간다, 예수라는 이름이 가리키는 존재가 누군데, 그 가리키는 존재의 무게가 조금이라도 너희가 부르는 이름 속에 들어와 있었다면 이렇게 흔들릴 리가 없다.'

자, 그러면 문제는 어떻게 내가 예수라는 이름을 부를 때, 그 예수라는 이름 속에 이름이 가리키는 존재의 무게들이 조금씩 조금씩이라도 무거워질 수 있을까요?
이 세상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도 흔들리지 않을 만큼.
사실은 지구가 멸망한다고 해도 우리가 움직일 필요 없는 거예요, 하늘나라 가는 거니까.
지구가 멸망한들 우리가 무슨 손해 볼 게 있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그게 가능할까요? 우리가 마음속에 생각하는 이름, 입으로 부르는 이름, 예수라는 이름 속에 무게가 실릴 수 있는 일이.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라는 이름도 마찬가지고, 예수님이라는 이름도 다 하늘에 계신 분들 아닙니까?
하늘에 계신 그 존재의 무게가 내가 생각하는 이름 속에 들어오려면, 중단 없이 주님의 십자가를 마음으로 바라보는 것밖에 없습니다.

히브리서에서 11장을 핵심 되는 구절이라고 하지만, 저는 그렇게 보고 싶어요.
12장 2절에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라보는 것,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3장에서 '내가 구리 뱀 장대처럼 들려야 하리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구리 뱀 장대는 쳐다보는 거였어요, 쳐다보는 자마다 독으로부터 해독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구리 뱀 장대는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 그리고 바라본다는 게 믿음과 같은 거예요.
즉, 마음으로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바라만 보는 거예요.
바라보면서, 내가 주님과 함께 죽었다고 하는 이 생각을 중단 없이 이어나갈 때, 내 마음은

세상을 빠져나와서 주님께서 만드신 공간, 그리스도 안, 십자가로부터 승천에까지 이어지는 그 공간 안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 공간 안에 들어가 있을 때에 약속에 따라 성령이 오시면서 성령께서 내 마음으로 하여금 영이신 하나님과 승천하신 주님과 교제를 하게 합니다.
나는 지금 의식적으로는 계속 주님이 십자가에 달린 모습을 바라봅니다, 시장에서건 사람을 만나건 거래처에서건, 학교에서건, 가정에서건, 마음속으로 계속 십자가를 바라봅니다.
그렇죠, 구리 뱀 장대처럼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를 바라보는 것을 언제 바라볼까요, 식후 30분에? 하루 세 번씩? 밥 먹고 나서? 아니면 할 일 없을 때?
아니에요, 바라보는 건 끝까지 바라보는 거고, 바라보는 게 믿음이에요.

이렇게 바라볼 때, 우리 마음이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고, 그 공간 안에서만 성령께서 임하셔서 만질 수도 볼 수도 없는 그 영이신 하나님과 승천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이 점점 깊이, 장관들이 대통령을 가까이 모시면서 아는 것과 마찬가지로 그렇게 알아가게 하면서, 장관들에게 박 근혜라는 이름이 갖는 무게만큼이나 예수나 하나님이라는 그 이름이 가리키는 존재의 무게들이 우리 마음속에 있는 그 이름 안으로 들어오게 된다는 겁니다.
나도 모르게 점점.
그래서 나도 모르게 돈 문제가 있어도 그 문제가 깃털처럼 여겨지는 겁니다.
자식 문제가 있어도 꼭 공부 못해서 인생이 망가진다고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깃털처럼 가벼워지는 겁니다.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고 하는 생각을 갖고 자식을 보기 시작합니다.
건강문제? '다들 이렇게 아프고 그러다가 죽는 거지!' 하는 마음으로 가볍게 털어버립니다, 어느새.
예수님이나 하나님이라는 이름이 가리키는 존재의 무게가 내가 마음속에 품고 있는 그 이름 안으로 들어와서 지구에서 일어나는 그 어떤 풍랑도 내 마음을 좌우로 흔들지 못하고, 천지의 주재이신 그 존재의 무게가 조금이라도 들어와 있으므로, 지구에 있는 어떤 일도 내 마음을 흔들지 못하는 상태에서 주님께서 '내가 주는 평강은 세상이 주는 평강과 같지 아니하다'는 그 평강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예수라는 이름의 무게가 돈 문제에 밀리고 건강 문제에 밀리고, 자식 문제에 밀리고, 사업문제에 밀리고 있습니까?
그러면 내 믿음을 의심해봐야 됩니다.
아직 믿음의 커트라인에 도달한 게 아닙니다, 아직 믿음이 있는 게 아닙니다.
믿음을 향해 가겠다는 결심을 한 상태인 것이지, 믿음이 있는 게 아닙니다.

믿음으로 구원받고 믿음으로 의롭게 되고, 믿음이 있는 자는 하나님께서 끝까지 붙드십니다마는, 아직 믿음을 향해 가고 있는 자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님의 십자가를 날마다 붙잡음으로써 지구의 무게를 이길 수 있을 만큼만이라도 주님의 존재, 하나님의 존재의 무게가 들어와서 살아가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아버지, 내가 이름으로 부르는 예수, 마음에 품는 예수라는 이름 속에 실제 예수님의 존재의 무게가 조금이라도 들어와 지구를 이길 수 있을 만큼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